

노화의 근본 원인 해결

피를 썩게 하는 마음 즉 '나라는 생각'이 노화의 가장 근본 원인

1. '나라는 생각을 없애야 노화 현상이 멈춘다

인체는 세포를 재조성하는 특성을 가져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늙음이고, 또 죽음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현대 과학은 사람이 늙는 원인에 대하여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병의 원인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학은 유행성 감기의 근본 원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도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긍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단지 열이 오르므로 해열제를 주고 목이 붓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질병의 근본적 발생 원인, 노화의 원인 제거 등 의학의 노정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현대 의학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화의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육체적 측면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화의 원인은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세포와 조직이 소모된다. 마치 기계가 오래되면 마모되는 것과 같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인체의 세포는 기계와 달리 소모되면 소모된 만큼 새로 조성되고 있다.

세포 재조성의 관점에서 늙고 죽는다는 것은 이상해

미국의 세포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노화에 의한 세포감소의 일반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세포 소모설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죽은 세포는 즉시 재조성되고 있다. 세포는 노화되지 않으며 새로 조성될 때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학을 두루 동원하여 보아도 노화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다.

늙는 것도 늙지 않는 것도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어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늙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흔히 고생을 많이 해서 늙었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

건강하고 정력적으로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쉬었더니 빨리 늙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고생을 많이 하면 늙고 휴식을 취하면 젊어지는 것이 아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력이 해이해지면 오히려 빨리 늙어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기계가 소모되었듯이 몸이 닳아서 늙는 것이 아니다. 늙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다. 피를 썩게 하는 마음 즉 '나라는 생각'이 노화의 가장 근본 원인이다.

그러므로 피가 썩지 않으려면 욕심이 없어져야 하며 욕심이 없어지면 '나라는 생각'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라는 생각'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목을 매서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생각'이 점차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나라는 개체의식에서 욕심이 나오고 분열과 싸움으로

본래 사람이면 다 한 몸이요 한 피이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한 몸인데 한 몸을 남의 몸처럼 여기며 서로서로 남으로 여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이라는 것을 의식만 해도 벌써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다 남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식'이요 '나라는 개체의식'이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만 잘 살려는 욕심'이 나오고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면 모두가 틀림없는 내 몸인데 내 몸을 남의 몸처럼 여기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남남이 아니요 다 한 몸인 것은 우리가 공중 하늘에서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몸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써 조성되어진 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로써 만들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로써 만들어졌으며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조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로써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올

라기면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같은 피요, 한 혈통이요, 한 형제인고로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가 6,000년 동안 60억(세계 인구수: 1999년 60억명 돌파 / 2023년 현재 80억명 돌파)으로 그 가치를 뺀 것과 같으니, 우리 인류는 틀림없는 한 몸이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인류 전체가 한 몸이라는 이 새로운 철학, 이 놀라운 진리를 널리 전파해야

그러나 '나라는 분열의 영이 인간을 점령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분열된 생각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피를 썩게 하는 생각(욕심, 자존심, 음란, 험기, 못마땅한 마음, 의심, 시기, 원망...)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고로 인간들은 각자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았지 형제를 내 몸처럼, 온 인류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여 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가지고 남의 몸으로 여기고 있는 이 미개한 사회를 계몽하여 인류 전체가 한 몸이라는 이 새로운 철학,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 모두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일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욕심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없으며, 서로 싸우려야 싸울 수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地上天國)이요 극락세계(極樂世界)가 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옆집 사람이 아무리 커다란 금덩어리를 갖고 있어도 옆집 사람이 내 몸이므로 그것이 곧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되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 되므로 침이 안 넘어가는 것이다.

너와 내가 따로 없으니 무거운 마음, 불편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한없이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것이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데 억지로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 인류가 한 몸'이라는 인식의 차원으로만 바뀌게 되면 자연히 나와 너를 구분하고 갈라놓는 '남'이라는 개체의식이 없게 되는 것이다.

뇌세포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느껴지는 현상

3. 생명자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이상구 박사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나라는 의식이 기뻐한다고 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기뻐해야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다. 하루종일 코메디 프로를 본다고 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밀어주면 양심이 기뻐지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다. 세상의 의학박사들은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말은 하면서 왜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는지 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심이 기뻐하면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백혈구 속의 생명자(生命子)라는 물질이 증가한다.

생명자의 수가 증가하면 그 반응으로 엔돌핀이라는 분비물질이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웃으면 백혈구 속에서 생명자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사람이 매일 한 시간씩만 웃으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압도 낮고 그 어떤 병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창조력이 있다는 말이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으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도 창조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기뻐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자주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씩만 웃어도 하루종일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을 찌푸리고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못마땅한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은 창조력이 있는 고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꽃 위에는 벌 나비가 날아와 앉고 풍 위에는 풍파리가 날아와 앉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움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신이 좌정하는 것이다.

4. 피를 썩게 하는 '나라는 자의식

피가 썩어서 병이 들고 피가 썩어서 사람이 늙으므로 피가 썩는 원인을 제거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피가 썩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피가 썩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자아(自我)의식을 제거하면 피가 맑아지고 세포 조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마음먹는 바에 따라 실제로 피가 바뀐다. 자아의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함에 따라 피가 바뀌는 것이다. 자아의식이 제거되면서 시커멓게 썩은 피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간다. 예를 들어 플라 색깔과 같은 검붉은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면서 몸에서 독한 독소가 제거되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피가 썩는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피가 안 썩어야 하는 것이다. 피가 썩어서 늙고 죽는다면 피가 안 썩는다면 늙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증거가 있어야 피가 썩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생명체인 인간의 몸은 밖으로부터 생명의 요소는 받아들이고 썩을 요소(독소물질)는 밖으로 배출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망의 물질을 배출하는 '나라는 의식이 제거될 때 소변을 통해서 썩은 피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몸이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면서 힘이 솟는다. 피가 맑아지면서 기미가 벗어지고 피부가 맑아진다.

피가 바뀌므로 세포가 바뀐다.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뼈도 바뀌어진다. 뇌세포도 새로 조성된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탁한 피는 소·대변과 그 밖의 분비물로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맑은 피로 재조성 된다.

"이 사람의 피부는 실제로 수십 번을 허물이 벗어지고 새로 났으며,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새로 났던 것이다. 뼈도 새로 바뀌어졌다. 이 사람이 50세가 되던 해에(1980년) 두 발로 땅에 선 채 뒤로 허리를 젖히니 머리가 땅에 닿았다. 그러나 50살 먹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의 뼈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 조희성님 말씀 중에서

이것은 이론적인 학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증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뇌세포와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재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뇌세포도 다시 재조성될 수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록펠러 대학의 신경생물학과 교수인 페르디난도 나트볼 교수에 위시한 연구팀은 캐나다 새의 뇌중추세포를 연구하다가 뇌세포의 재생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캐나다 새의 수컷은 봄철에 주로 울고 겨울철에는 울지 않는데 연구팀은 캐나다 새의 뇌세포가 계절에 따라 크게 증감(增減)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것이다.

캐나리아는 겨울이 되면 전에 부르던 노래를 다 잊어버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새로운 노래를 지어준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던 뇌세포가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다 죽어 버리고 봄이 되면 새로운 뇌세포가 조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트볼 교수 팀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신체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여 새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봄철에 캐나다 새의 뇌세포가 하루에 약 2만 개씩이나 증가하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생물 학계에서는 이 사실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학계에서는 뇌세포의 재생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캐나다의 뇌세포는 철에 따라 재조성되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쥐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인디애나' 대학의 '사리베리아' 교수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 결국 학계에서는 나트볼 교수의 새로운 학설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그러한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학동아 86년 2월호)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곳 '승리제단'에서 일어났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각현상(自覺現象)은 머리가 맑아지면서 잡념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젊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세포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느껴지는 현상이다. 60이 넘어 70, 80세가 된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끊어졌던 월경을 새로 한다.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면서 몸에서 향기가 난다.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 내 몸이 변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라는 의식이 부리는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의 죄도 내 죄,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자유율법을 실천하자.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줄 것이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